# 'NS 푸드페스타' 준비 본격화

## 9월 26~27일, 하림 퍼스트키친서… 익산시, 시민·관광객 체험형 미식 문화 축제로 재구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참여형 식품문화축제가 올가을에도 익산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NS 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는 9월 26~27일 익산 제4산업단지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NS 푸드페스타'는 식품·문화·관광이 융합된 국내 유일의 민관협력형 식품 축제다. 익산시와 NS홈쇼핑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경연형 중심에서 시민 체험형으로 전환돼, 더욱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재구성된다.

특히 주말을 포함한 일정 운영과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 확대로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장은 기존 1개 돔텐트 중심에서 벗어나 4개의 테마별 돔텐트로 확대된다. 주무대는 야외에 배치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해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올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요리경연 △유명 셰프 초청 쿠킹클래스 △최태성(큰별쌤) 강사의 음식문화 토크쇼 △지역 대표음식·맛집 선포식 △도전! 푸드골든벨 △익산 농특산물 판매 및 향토음식 체험관 △익산 대물림 맛집 12선 시식회 △농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이 마련된다.

또 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함께 추진 중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식문화 자산을 알리고 '식품관광도시 익산' 브랜드를 강화한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올해 NS 푸드페스타는 단순한 먹거리 중심 축제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미식 문화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완성도 높은 행사 추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S 푸드페스타'는 NS홈쇼핑이 2008년 서울에서 시작한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모태로 하며, 2022년부터 하림 지주 본사가 있는 익산으로 무대를 옮겨 익산시와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발 빠른 '내년 국가예산 확보' 행정 돌입

## 강임준 시장, 중앙 관계 부처 연쇄 방문… 예산 반영 적극 건의

군산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행보에 돌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4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연쇄 방문했으며 총 사업비 약 2,900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사업 8건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사업은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광대도 탐방로 조성공사 △군산 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 △군산시 나운1·2구역 노후 상수관 망 정비사업 등 총 8건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반복되는 침수피해 및 태풍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관련 사업 3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사업 3건 중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로 사정동·개정동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빗물 저류조 등 종합적인 배수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

또한 고군산군도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한 △광대도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질공원 등재 지역의 관광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강 시장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도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군산 '철길숲 확대 조성사업'을 제시하였다. 해당 사업은 기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의 연장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는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사업 △군산시 나운1·2구역 노후 상수관 망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개야도는 전북권 핵심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시설이 미비해 어민들의 생계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어,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항 기반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군산시의 노후 상수관 망 문제에 대해서 강 시장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관 망을 교체하고 관망 구조를 재배치함으로써 공급 안정성과 수질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서 방문이 끝난 뒤, 강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방문하기 전부터 군산시는 사업별 설명자료와 정책적 논거를 철저히 준비했으며, 관계 부처 사업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것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국가예산 관련 보고회 및 실무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전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별 논리 개발, 정책 연계성 확보, 중앙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예산 건의를 준비하였다.

강임준 시장은 "부처 예산안 편성은 국비 확보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군산시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정합성, 시급성에 대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속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며, "예산 반영이 곧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행정역량을 집중하자."라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6. 3 대선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총력'

## 강임준 군산시장 "공정한 선거 환경 위해 최선 다 할것"

강임준 군산시장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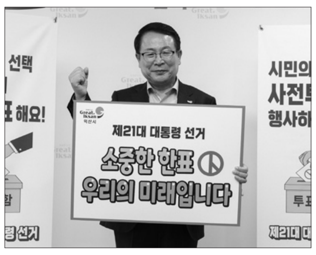
강 시장은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청사 외벽 및 읍면동 지정 게시대를 통해 투표 독려 문구를 게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강 시장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접근성 확보,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 전방위 투표 독려 캠페인

## 본 투표일까지 행정력 집중… 투·개표 사무원 1277명 편성 등




익산시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전방위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14일 정헌율 익산시장의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투표일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투표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투표가 곧 국민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시민과 함께 되새기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익산시 누리집과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요 시가지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해 선거일이나 투표 절차 등의 기본 정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시는 선거 관련 행정 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 투표 접수 등 법정 절차를 담당하는 읍면동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277명의 투·개표 사무원을 편성해 대응 체계를 마련 중이다.

정 시장은 "투표는 시민권리를 행사하는 강력한 도구" 라며 "익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전기·수소 자동차 보조금 접수

군산시가 총 사업비 190억을 들여 593대를 지원하는 '2025년 친환경 그린모빌리티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그린모빌리티(친환경 이동수단) 사업으로 지원되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541대(전기 승용 370대·전기 화물 150대·전기버스 21대)와 수소자동차 52대(수소 승용 30대·수소 버스 22대)이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은 최대 1,210만원, 전기 화물은 최대 1,750만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자동차의 경우엔 수소 승용 최대 3,450만원, 수소 버스는 최대 3억8,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시는 지원 대상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토크 콘서트 개최

익산시가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존중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14일 유천도서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니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을 주제로,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직장 내 세대 간 갈등을 이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부공무원들은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과 함께 실제 근무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고민을 주제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체감하며,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계기로 보다 열린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제1회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군산시는 군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보상금 지급을 위한 '2025년 제1회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대상자를 1,982명 확정했으며, 보상금은 6억2,144만 9,36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만약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다면, 시는 확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